

전주시, 시민 복지 · 안전망 구축 ‘빛났다’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 · 특별교부세 3500만원 받아

전주시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 ·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읍면동 복지 · 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심사 발표 및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및 안전관리기능 강화 분야 혁신적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지역복지 공유플랫폼 공동복지’ 사업으로 최종 24개 지자체 우수사례 중 본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3,500만원을 받게 됐다.

전주시가 제출한 ‘지역복지 공유플



전주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읍면동 복지 · 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본심사 발표 및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랫폼 공동복지’ 사업은 △지역 내 주 민공유공간 ‘우리동네공유부엌’ 두루

마실’ △ ‘전주함께라면’ & ‘전주함께라떼’ 공간조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지역 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이들 사업이 나눔과 지원의 선순환을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복지서비스 지역 편차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주목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으로 전주시의 독창적인 복지정책이 널리 인정받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복지 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옹기, 찻잎을 품고 겨울에 피다

11일까지 전설희 작가 ‘옹기 차도구전 품:다’ 전시

우리네 추억을 지키던 전통 옹기의 새 해석이 차관에서 피어난다.

전설희 작가는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옹기 차도구전 품:다(茶)전’을 자유명차 전주혁신점(대표 이우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자연을 옹기 소재 차그릇에 담아 표현했다.

차를 마시며 차그릇에 주목한 전설희 작가는 차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차통과 차호 그리고 찻잔 등, 찻자리 그릇을 만들며 차와 그릇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졌다고 한다.

전설희 작가의 작품에 드러나는 도토리알과 풀잎 등의 자연을 모티브로 한 소재는, 옹기 차그릇을 섬세하고 현대적인 작품으로 보이게 한다.

도토리 모습으로 형상화 한 옹기, 팔각과 곡선이 함께 어우러지는 차통, 단정한 선이 매력적인 찻잔



과 받침들. 작가가 고심하며 작업한 시간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전설희 작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 공예학과를 졸업했다. 2019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코엑스), 2021 ‘옹기의 미학’ 인천국제공항 전시장, 2021 ‘삶의 품성’ 홍익미술관(서울) 등의 전시를 진행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자유명차 전주혁신점(063-221-2281)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청소년 성의식 개선 캠페인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서신중서 디지털 성폭력 정보 등 제공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심기분)는 지난달 29일 전주서신중학교에서 여성 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성의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서신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매체 속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했다. 또, 안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성폭력 심각성 퀴즈로 알아보기 △우리가 만든 안전한 디지털 세상 약속 정하기

△디지털 성폭력 피해 신고 지원 기관 알기 등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상 속 행동 지침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었으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심기분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달 29일 전주서신중학교에서 여성 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성의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전한 성문화 확산과 성문화 의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주민센터는 지난달 28일 클라시아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했다.

전주 우아1동 클라시아 아파트 경로당 개소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주민센터(동장 송정하)는 지난달 28일 클라시아 아파트 경로당(회장 박노봉)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온혜정 시의원,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전영배 회장 및 경로당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를 축하했다.

2021년 2월 입주를 시작한 ‘클라시아 더 스카이 아파트’는 32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이번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 4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개소하게 되었다. 클라시아 경로당은 58㎡ 규모로, 할

아버지 · 할머니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경로당 개소식을 준비해온 박노봉 경로당 회장은 “회원분들이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가 및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기쁘다”라며 “주민들의 화합과 경로당 회원들을 위한 여가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정하 우아1동장은 “클라시아 경로당 어르신들이 늘 행복하고 건강한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수시감독 결과 발표

임금체불 ·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403건 적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미준수한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24년 관내 사업장 등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총 4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해 관내 사업장 102개소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

성 및 최저임금 준수 위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은 모두 403건이며, 특히 이 중 임금체불의 경우 총 42개 사업장에서 685명의 근로자가 약 6억80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제조업체 A사는 정해진 점심 휴

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30분마다 교대근무를 근로자들에게 시켰으며, 연장근로수당 10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B금융기관의 경우는 기관에 파견된 근로자 12명의 식비 · 교통비 · 연말 성과급 · 복지포인트를 일반 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차별 대우로 B사는 8300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의료기관은 퇴직자 87명에 대해서 연차 미사용 수당, 연장근로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총 6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불법 파견까지 저질러 사법조치에 처해졌다.

노동당국은 이러한 임금체불 사업장 중 37개소 사업장이 체불한 4억4000여만원은 적극 지도를 통해 청산했고, 청산되지 않은 5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사법조치를 마쳤다.

황정호 노동부 전주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막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리 · 이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적십자회비와 함께 마음이 닿는 곳, 새로운 희망이 피어납니다



후원 및 참여문의
☎ 1577-8179



홍보대사 정동원, 장민호

후원계좌 : 전북은행 503-23-0312264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